

전 남

섬진강에 연어 돌아왔다



섬진강의 반가운 손님 연어가 예년보다 1주일 빨리 찾아왔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원장 최연수)은 18일 “섬진강 어류생태관에서는 광양 다압면 고사리~하동 약양면 평사리 등지에서 연어의 회귀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 10일 올 해 첫 연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에 비해 1주일 정도 빠른 것이다.

섬진강은 국내 5대 강 중 가장 맑고 깨끗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는 생태학적·생물학적·자원학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다. 청정하천으로 매년 모전회귀 어종인 연어가 돌아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 섬진강 수온은 17도 내외로 섬진강 연어 주 회귀 시기인 10월 말~11월께 연어 회귀가 본격적으로

15년간 어린연어 537만5000여 마리 방류
예년보다 1주일 빨라... 올 300마리 올 듯

이뤄질 전망으로 올 해에 200~300마리의 어린연어가 돌아올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섬진강 연어 회귀는 지난 2007년 400마리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59마리가 섬진강을 찾았다. 올해 회귀하는 연어는 섬진강 어류생태관에서 방류한 어린 연어들이 북태평양에서 3~5년 어미연어로 성장해 산란을 위해 모전인 섬진강을 찾아와 산란한 후 생을 마친다. 어린 연어는 12월 부화해 섬진강에서 머물

다 내년 3~4월 다시 바다로 내려가 머나먼 북태평양으로 길을 떠난다.

그동안 연어자원 회복 및 조성·관리 등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15년간 어린연어 537만5000 마리(섬진강 484만5000·탐진강 53만 마리)를 방류했다.

섬진강 어류생태관에서는 올해도 어린 연어 20만 마리를 부화해 내년 3월 방류할 계획이다. 또 연어의 생리생태, 성장단계별 특성 등을 연구해 어미연어로 성장시키는 양식기술 개

발 시험연구를 추진한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최연수 원장은 “섬진강으로 회귀하는 어미 연어 연령과 성숙도 등을 조사하고 수정란을 부화시켜 섬진강 수계 연어자원을 조성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에 위치한 섬진강 어류생태관은 지난 2008년 3월 개관해 섬진강 수계에 사라져가는 생물자원의 다양한 토산어류를 전시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천연 기념물, 희귀어종 보존 시험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대 민물고기 전시관의 중심기 역할을 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목포 부주산 공원에 축구 인조 잔디구장

공공 체육시설 확충 나서

목포시가 다양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는데 부주산 공원에 축구 인조 잔디구장이 조성됐다.

목포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부주산 축구경기장을 기존 축구 구장(92×95m)에서 인조 잔디구장(100×65m)으로 확장 조성했다. <사진>

부주산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국민체육진흥기금·시·도·도비 등 총 5억3000만 원을 들여 이달 중 준공예정이다. 11월부터는 축구동호인 등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여가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대연초등학교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데 이어 올해 둔대고, 목포공고, 목포



대 용해캠퍼스 인조 잔디구장을 비롯해 임성초등학교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도 건립 중에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맞춤형 여가시설 확충을 통해 행복한 배움의 터전과 건전한 여가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장에 토요그림경매 홍보관

전남문화예술재단 남도예술은행은 오는 29일까지 나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2012 국제농업박람회'에서 '토요그림경매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 홍보관에는 남도예술은행의 진도 윤림산방 소장 작품 이미지 등을 전시하고 남도예술은행이 소장한 작품을 소개한다.

또 토요그림경매 과정 등을 담은 동영상과 소장 작품 포트폴리오를 함께 선보이고, 특별 기획행사도 작가 10명이 참여하는 사회체험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유기 가공식품 인증기관

품질관리원, 호남 첫 지정 인증 비용 유출 방지 기대

나주시 동수동에 있는 전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식품산업연구센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호남지역 첫 유기 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센터는 이번 지정으로 5년간 유기 가공식품 인증 심사기관으로 활동하게 되며 그동안 호남권에 인증기관이 없어 관외로 유출되던 인증비용을 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됐다.

다. 또 점차 확대되는 유기 가공식품 시장 추세에 맞춰 인증업체의 편의 증대 및 향후 도내 친환경 식품업체의 인증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는 14개의 유기 가공식품 인증기관이 있다. 유기 가공식품은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사용해 유기적 방법으로 제조한 식품이다. 인증제품은 유기 가공식품임을 나타내는 인증로고 및 유기 관련 표현

을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유기 취급계획서, 원료 및 첨가물 적합증명서 등을 작성해 전남 식품연구센터에 신청하면 서류·현장심사 및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전남식품연구센터는 도내 유기 가공식품 인증업체 및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유

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현경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소장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유기 가공식품의 우수성 규명과 관련 기술 개발에 노력해 전남을 유기 가공식품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송산리 해넘이길

신안 자은면 해넘이길·부안 변산 마실길 '해안누리길' 선정

국토부, 전국 5곳 관광상품 개발키로

신안 '해넘이길'과 부안 '변산 마실길'(1구간)이 바다를 끼고 걷기 좋은 도보관광 대표노선으로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해안경관이 뛰어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전국 52개 노선(총 505.1km)을 발굴해 '해안누리길'로 이름지었다.

이번에 대표노선으로 뽑힌 해안

누리길은 신안 해넘이길과 부안 변산마실길(1구간)을 비롯해 ▲인천 강화 호국순대길 ▲경남 고성 공룡화석길 해변길 ▲부산영도 갈매길 등 5곳이다.

국토부는 전국의 52개 해안누리길 중에서 노선의 역사·문화적 가치, 도보 안전성, 경관의 다양성, 시설·교통 편의성, 주변 관광지와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꼭 한번 가볼 만한 5곳을 선정했다.

신안 해넘이길은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송산리간 12km 구간으로,

'한운임도 숲속길'이 매력으로 꼽혔다.

부안 '변산 마실길'은 밀물 때 해안 오솔길을 걷고, 썰물 때는 암석과 모래펄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만금 방조제, 적벽강, 체석강 등 관광명소와 가깝다.

국토부는 향후 대표노선과 해수욕장, 유적지 등 주변 관광자원을 묶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안내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곡성 농·축협 임직원 50명 환경정화 활동

도립사 일원에서

농협 곡성군지부(지부장 문영홍)는 18일 도립사 일원에서 곡성군 농·축협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곡성군 농협인 한마음 상생행사의 일환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농·축협 임직원들은 '환경이 곡성의 미래다! 농협이 농업의 미래다!'는 슬로건 아래 환경보전 결의대회를 갖고 도립사 계곡과 동악산 등산로를 따

라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곡성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 확대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농업인에 대한 무한 봉사의 실천으로 '고마운 농협'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문영홍 지부장은 “농·축협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펼쳐 전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kwangju.co.kr

광양항~日 카페리 취항 재개

광양시·정상그룹 MOU 체결

광양시(시장 이성웅)가 정상그룹(회장 박정학)과 광양항~일본간 카페리 취항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17일 체결했다.

광양시는 “광양과 일본 간 카페리 항로 개설과 관련 정상그룹과 내년 상반기에 취항을 목표로 시의회 승인, 항만여건과 시장 조사 등 상호 협력 체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그동안 운항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던 광양~일본간 카페리 항로 개설 추진이 한가닥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정상그룹은 정상 종합건설이 주력인 중견기업으로, 강릉~울릉도~독도간 페리 여객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정기자 py4079@kwangju.co.kr

SCREEN GOLF

두암골프존

두암골프존 파격할인

REAL 18홀 14,000원(연중동일)

오전(평일) 12,000원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 적용합니다.

골프존 기본형 18홀 12,000원(연중동일요금)

오전(평일) 10,000원(12시 티업까지)

- 편안하고 쾌적한 최고시설 5개동
- 전타석 스윙플레이트
- 원순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룸
-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 일제외)
-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필드의 느낌을 그대로..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환도로쪽 70m [옛날 5층]

예약 ☎ 234-9999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